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http://www.cepik.re.kr>

보도자료

건설기술인의 더 나은 미래,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배포일자

2024년 11월 29일 / 총 3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연구실 미래전략연구팀/신원상 부연구위원
(02-6204-4336, wsshin@cepik.re.kr)

보도일시

2024.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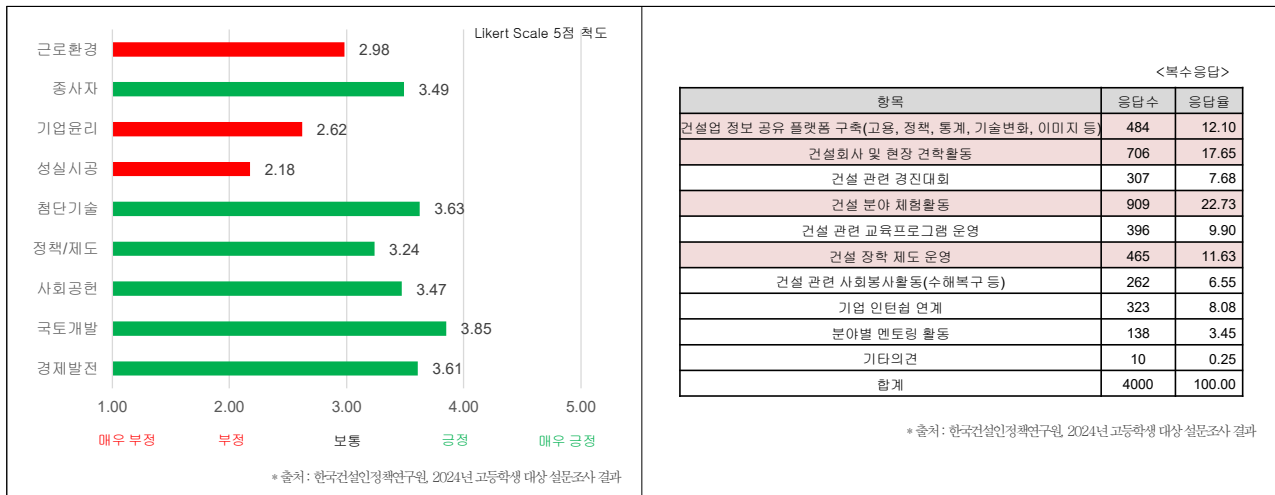
건설산업 호감도, 왜 낮을까? Z세대 실태조사로 본 문제와 해법 “Z세대와의 거리 좁히기,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이 핵심”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Z세대 건설산업 이미지 실태조사 · 분석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Z세대(고등학생 및 대학생)를 대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Z세대의 건설산업 진로 선택 의사와 산업별 호감도 및 이미지 평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Z세대의 낮은 호감도와 진로 회피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향후 건설 기술인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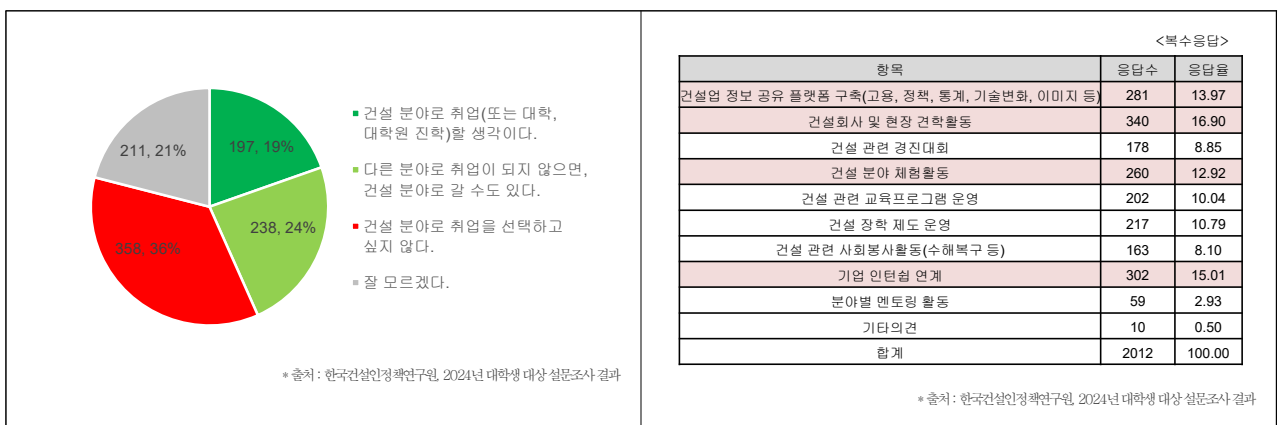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조사기간:2024.7.8.~28, 2,000명)의 경우 단 6%만이 건설 분야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주요 이유로는 △적성과 소질이 맞지 않다는 점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 부정적인 이미지 △타 산업 대비 열악한 근무 조건을 꼽았다.

또한 산업별 호감도 조사에서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과 대조적으로 총 22개 산업분야 중 13위에 머물렀으며, 건설산업에 대한 호감을 높이기 위해 직업체험관 운영, 사회 인프라 시설 견학, 진로 정보 제공 플랫폼 마련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조사기간:2024. 7. 16~8.30 1,006명)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건설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건설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19%에 그쳤으며,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적성과 소질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었다.

대학생 대상 산업별 호감도 조사에서 건설업은 7위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건설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키워드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역개발, 랜드마크, 전문성, 글로벌 진출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정적 이미지 키워드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재해, 민원발생, 담합, 부실경영 등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콜로키움 세미나에서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인력 유입 방안을 논의하며,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해야 할 역할과 지원체계를 모색했다.

콜로키움 세미나에서 김문겸 원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는 미래를 이끌어갈 Z세대의 관심을 얻는 데 있어, 건설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 결

과”며 “이들의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기술인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설산업 이미지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콜로키움 세미나에서는, 이미지 재정립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 기술인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한 E&E 포럼 등 개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래 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신원상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더 이상 과거의 노동 중심 산업이 아니라 스마트 기술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변화하고 있음을 Z세대에게 체험 위주의 사업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체험형 프로그램과 정보 플랫폼 구축·직업교육과 현장교육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사업을 제안하며, 산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Z세대와 건설산업 간의 거리를 좁혀나갈 계획이다.